

# 7월 위기와 1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에 대한 재고찰

- 독일과 러시아의 위협인식 -

오 인 환\*

1. 서론
2. 7월 위기와 위협인식
3. 독일의 위협인식 : 정치인과 군부
4. 러시아의 위협인식 : 정치인과 군부
5. 결론 : 위협인식의 연쇄반응과 정보전, 그리고 독일 패러다임

## 1. 서론

2014년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과 전차와 같은 무기체계의 본격적인 활용에 의한 전쟁양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전쟁수행을 위해 총동원되는 총력전이라는 개념을 낳은 전쟁으로 기억된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양차대전이 오늘날의 유럽을 형성한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강사

20세기의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을 재조명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관련한 논의는 크게 그 주된 원인이 독일의 세계정책(Weltpolitik)이었든, 술리펜 계획이었든 독일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과, 독일뿐만 아니라 당시 관련 국가들의 군주를 포함한 정치인, 그리고 군부의 서로 다른 판단으로 인한 연쇄적인 정책결정을 강조하는 측으로 나뉘볼 수 있다. 전자의 주장은 대표적으로 독일이 사라예보 사건 이전부터 영국과의 경쟁속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유럽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고 주장한 피셔<sup>1)</sup>에 의해 제기되었고, 독일의 세계정책을 분석한 가이스(Immanuel Geiss)<sup>2)</sup>에 의해 지지되었다. 폴 케네디 또한 영국과 독일의 패권경쟁이라는 측면<sup>3)</sup>에서 피셔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테일러의 경우<sup>4)</sup>, 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시간표에 의한 전쟁(War by Timetable)’ 논의를 통해 술리펜 계획의 경직성이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의 전쟁책임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1차 세계대전 원인에 관한 그 간의 논의는 피셔 논쟁과 독일의 책임론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최근의 연구 중 새뮤얼 윌리엄슨(Samuel Williamson, Jr)은 특히 독일의 원인제공이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져 연구되었던 1차 세계대전 연구의 편향성을 독일 패러다임(the German Paradigm)<sup>5)</sup>으로 지적하며, 독일의 원인

1) Fritz Fischer, 「World Policy, World Power and German War Aims,」 in H.W. Koch(ed.)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The Great Power Rivalry and German War Aims*, London:Macmillan, 1984, pp.128~188.

2) Immanuel Geiss,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in H.W. Koch(ed.)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The Great Power Rivalry and German War Aims*, London:Macmillan, 1984, pp.65~79.

3) Paul Kennedy, *The Rise of the Anglo-German Antagonism, 1860~1914*, (London, 1980)

4) A.J.P.Taylor, 「War by Time-table,」 *From the Boer War to the Cold War: Essays on Twentieth-Century Europe*, London:Hamish-Hamilton, 1995.

5) Jack Levy and John Vasquez, *The Outbreak of the First World War: Structure, Politics, and Decision-Mak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30~35.

제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만큼 다른 국가의 원인제공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그 만큼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르사유 조약 231조에 의거한 독일의 전쟁책임과 배상금 부여로 인한 정치적, 도덕적, 법적인 독일에 대한 책임론이 전쟁 발발 원인 분석에 영향을 주어 객관적인 원인 평가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독일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연구들은 과연 1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독일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큰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피셔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1972년 에르트만(Erdmann)이 리츨러(Riezler)의 일기를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에르트만과 제힐린(Zechlin)은 독일의 제국수상 베틀만-홀벡(Theobald von Bethmann-Hollweg)의 경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전쟁을 의도하지 않았으며<sup>6)</sup>,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지원한 것은 세계열강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닌 방어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이다.<sup>7)</sup> 닐 퍼거슨(Niall Ferguson) 또한 피셔가 독일이 영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패권을 추구하였다는 주장한 것과 관련해, 영국에게 독일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큼 외교적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독일이 팽창을 추구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한 위협에 몰린 상태에서의 도박(gamble)을 선택했다고 주장한다.<sup>8)</sup> 그리고 퍼거슨은 이 같은 도박의 선택도 사실 러시아의 총동원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9)</sup> 존 키건은 테일러의 '시간표에 의한 전쟁'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이미 1904년에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군사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6) 정상수, 「1914년 7월 위기: 발칸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의 길목에서」, 『역사교육』 125권, 역사교육연구회, 2013, 294~296쪽.

7) Bernd Jürgen Wendt, 「1차 세계대전 발발에 관한 토론의 현황」, 정현백 옮김, 서양사론, 1985, 127쪽.

8) Niall Ferguson, *The Pity of War*, Penguin Press, 1998, p.25

9) 정상수, 전계서, 2013, 324~327쪽.

보불전쟁 이후 신속한 병력의 동원과 배치를 위해 다소 경직되지만 구체화된 동원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키건은 이러한 군사계획은 군부에 의해 독립적으로 고안되었을 뿐이며, 군부의 계획은 정치인들에 의해 언제나 거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근거로 1905년에 완성되고 그 이후에도 준비되었던 솔리펜 계획을 베트남 - 홀백은 1912년 12월에 되어서야 알게되며, 군사정책과 전쟁계획은 육군성(the War Ministry)과 의회가 배제된 채 총참모부(the Great General Staff)가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한다.<sup>10)</sup>

요컨대, 독일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발칸 지역에서의 국지전이 아니라 유럽전쟁을 감수하고, 또 의도했다는 주장과, 독일은 당시 유럽의 세력균형과 동맹관계에 의해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sup>11)</sup>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반드시 유럽전쟁을 의도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과 같은 국가들의 선택도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관점이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와 후자의 관점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1차 세계대전 발발의 국면이 바로 7월 위기(the July Crisis)라 볼 수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한 6월 28일 직후 발발되지 않았으며, 최초의 군사적인 침공은 8월 4일 독일이 중립국인 벨기에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라예보 사건과 전쟁 발발 사이의 기간인 7월 위기에서 각 국가의 위협인식과 연속적인 선택 가운데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6월 28일과 8월 4일 사이의 기간-7월 위기-에 나타난 독일, 러시아의 위협인식과 정책결정을 정치인과 군부로 나누어 1차 세계대전 당시 각 국가의 의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각 국가의 의도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만약 독일이

10) John Keegan, *The First World War*, London:Hutchinson, 1998, pp.30~31.

11) 당시 이중제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의미하며, 편의상 오스트리아로 지칭한다.

팽창적인, 혹은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독일의 정치인이었는가? 아니면 독일의 군부였는가?, 아니면 군주였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본 논문은 독일을 포함한 당시 유럽 국가들의 군주를 포함한 정치인, 그리고 군부의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의 차이와 그에 따른 선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같은 분석은 1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의도의 복잡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당시 유럽 국가들의 위협인식과 의도를 하나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본고는 잭 레비, 새뮤얼 윌리엄슨, 로널드 밥로프(Ronald Bobroff), 정상수 등의 최근 연구를 반영하여 7월 위기에 나타난 독일과 러시아의 입장을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일 패러다임을 재평가하며, 각 국가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위협인식을 가졌던 정치인과 군부의 입장의 차이를 확인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책임 문제에서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은 러시아 또한 7월 위기 중 사라예보 사건을 유럽전쟁으로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7월 위기와 위협인식

국제정치학에서 언급되는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sup>12)</sup>이란, 일반적으로 상대국가의 의도와 능력을 한 국가가 얼마나 위협으로 인식하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한 점은 위협인식도 하나의 인식(perception)이라는 점이다. 즉, 실제로는 위협이 아닌 상황임에도

12) Raymond Cohen, *Threat Perception in International Crisi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9, pp.3~5.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그것을 위협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위협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관련 국가가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국가가 상대국가에 대해 위협이 될 만한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협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때, 상대국가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기적인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위협적인 의도가 없음에도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거나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인(misperception)이 실제 상황에서는 빈번히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위협인식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계 청년인 가브릴로 프린치프(Gavrilo Princip)에 의해 살해된 시기부터 8월 4일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기까지의 일련의 외교와 동원령 결정에서 나타나는 각 국가의 위협인식은 발칸지역에서의 갈등이 유럽전쟁으로 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독일의 오스트리아-헝가리에 대한 지원이 큰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유럽전쟁에 별다른 이익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영국이 참전하였으며, 또한 발칸 지역에서의 갈등 해결을 의도할 것이라고 예상된 러시아가 오히려 국지전을 넘어선 유럽전쟁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사라예보 사건이 1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 국가 내에서도 7월 위기 중 나타난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이 달랐기 때문이며 7월 위기 중 나타난 당시 유럽의 외교와 동원령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인식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이 군부와 최종적인 군사작전을 결정하는 정치인들 간의 긴밀한 조정(consultation)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인과 군부간의 서로 다른 인식과 군부의 동원계획은 7월 위기 간의 오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 논문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다른 연구들의 특징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 제국주의, 군사주의, 비밀외교, 민족주의, 공세지상주의(the Cult of the Offensive) 등의 한 거시적 요인이나 한 국가의 정책에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는데 있다.<sup>13)</sup>

니얼 퍼거슨은 오히려 당시 비밀외교가 식민지 문제와 해군문제에 대한 타협을 이뤄내는데 성공적이었으며, 독일과 영국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sup>14)</sup> 잭 레비(Jack Levy)의 경우, 1차 세계대전이 당시 국가들이 의도하지 않았던(inadvertent) 전쟁이었다는 관점을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점(commonly-held view)으로 표현하며 7월 위기와 동원령 결정과 관련된 복잡한 양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sup>15)</sup> 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분석한 마이클 만(Michael Mann)은 각 국가의 계층(classes)과 정치인, 군부,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정당이라는 서로 중첩되어 있는 권력 네트워크(power networks)가 서로에 대한 조정에 실패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보고 있다.<sup>16)</sup> 휴 스트레천(Hew Strachan) 역시 독일의 세계정책은 독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사용하는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의 세계정책 자체가 독일로 하여금 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만 독일의 세계정책이 해군과 식민지, 그리고 경제라는 세 가지

13) Richard Hamilton and Holger Herwig, *Decisions for War, 1914~1917*,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5~8.

14) Niall Ferguson, *The Pity of War*, Penguin Press, 1998, pp.442~444.

15) Jack Levy, Thomas Chirstensen and Marc Trachtenberg, 「Correspondence: Mobilization and Inadvertence in the July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Summer, 1991(Vol. 16, No. 1) p.189.

16) Michael 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741.

측면에서 당시 유럽의 현상유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17)</sup>

### 3. 독일의 위협인식 : 정치인과 군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총살을 당하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대한 발칸지역에서의 전쟁을 통해 강경한 대응을 취하고자 하였다. 7월 2일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셉(Franz Joseph I)은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응징하겠다는 친서를 독일 황제인 빌헬름 2세(Wilhelm II)에게 외교부 차관 호이오스(Alexander Graf von Hoyos)를 통해 보낸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원하는 것은 세르비아와의 전쟁 시 필요한 독일로부터의 지원약속이었다. 7월 5일 정오 즈음, 호이오스로부터 오스트리아 황제의 친서를 전달받은 오스트리아 대사 쇠기에니(László Szógyény-Marich)는 빌헬름 황제를 포츠담에서 만나게 된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여기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것이 설사 유럽에서의 심각한 문제(serious european complications)가 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가능한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달한다. 이 7월 5일의 언급과 7월 6일에 이어진 독일 지원에 대한 재확인이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백지위임장(carte blanche, blank check)이며, 독일에게 전쟁 발발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근거가 된다. 요컨대, 빌헬름 2세는 7월 5일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중용했고, 그것이 가능한

17) Hew Strachan, *The First World War*, Penguin Press, 2003, p.37.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오스트리아에 전달하였으며, 7월 6일에는 베트만 - 홀벡이 독일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원을 보증하였던 것이다.<sup>18)</sup>

피서는 독일의 백지 위임장과 이후의 전쟁 수행이 세계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독일의 정책의도의 결과였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지역, 발칸지역, 터키 내 독일의 경제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중요한 원인을 독일이 제공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백지위임장으로 해석되는 7월 5일의 빌헬름 2세의 언급은 우선 당시 삼국협상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했던 당연한 지원약속이었다. 무엇보다 7월 말에 베트만 - 홀벡이 보여주었던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국지전(Halt in Belgrade)에 대한 추진을 고려할 때<sup>19)</sup>, 과연 독일이 유럽전쟁을 원했는가, 왜 베트만 - 홀벡이 국지전을 추구했음에도 7월 위기가 유럽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질문해야 한다. 당시의 동맹관계 속에서 독일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협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유일한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적대적인 동맹국으로부터의 고립에서 빠져나와야 했다.<sup>20)</sup> 즉, 적대적인 동맹에 대한 위협인식이 백지위임장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이다.

독일은 삼국협상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양상의 유럽전쟁은 아니었다는 점은 베트만 - 홀벡의 국지전 구상과 7월 위기 중 러시아의 외상 사조노프와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의 개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통해

18) Annika Mombauer,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Controversies and Consensus*,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2, pp.14~15.

19) 정상수, 「1차 세계대전의 원인: 독일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Vol.22, 1998, 139쪽.

20) Holger Herwig, *The First World War: Germany and Austria-Hungary 1914~1918*, London:Arnold, pp.18~19.

알 수 있다.<sup>21)</sup> 빌헬름 2세도 7월 말의 모습을 보면 베트만 - 홀벡의 의견에 동조하는데, 이것은 언급한 백지위임장으로 해석되는 7월 5일과 6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우선 7월 5일의 빌헬름 2세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sup>22)</sup> 그럼에도 혹여나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속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프랑스도 재정적 여유가 없기에 전쟁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이다. 빌헬름 2세는 이러한 예상 속에서 이른 바 백지위임장을 주었다. 그는 세르비아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응징이 8일 후에 세르비아의 굴복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7월 6일 노르웨이 여행을 떠나기 전, 해군부 차관 카펠레(Eduard von Capelle) 제독을 신궁전으로 불러 이야기하였다.<sup>23)</sup>

빌헬름 2세는 이처럼 자신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원약속이 유럽전쟁으로는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예상가운데 노르웨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빌헬름 2세가 독일이 개입된 유럽전쟁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점은 7월 23일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에 대해 세르비아가 의외로 사라예보 사건 재판에 대한 오스트리아 관리의 개입이라는 하나의 항목 외에 모두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독일 군부를 실망시켰다는 사실<sup>24)</sup>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베트만 - 홀벡 또한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의 소식을 듣고 만약 이 전쟁이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만의 전쟁으로 국지화될 수 있다면 유럽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sup>25)</sup> 만약 오스트리아가 빠른 시간 내에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1) 정상수, 전계서, 2013, 314쪽.

22) 상계서, 302쪽.

23) 상계서, 303쪽.

24) Annika Mombauer, op.cit., 2002, p.15.

25) A.J.P.Taylor, op.cit., 1995, p.156.

세르비아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1913년 발칸전쟁으로 인한 세르비아의 영토확장과 사라예보 사건으로 실추된 오스트리아의 위신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제국으로서 발칸지역에서 그 세력을 유지해주는 것은 다소 불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기에 베트만 - 홀벡은 발칸지역에서의 국지전을 추구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가 제국의 위신을 유지하는 것과 세르비아문제가 독일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무엇보다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했고, 베트만 - 홀벡은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허윅(Holger Herwig)의 경우, 베트만 - 홀벡이 전쟁을 통해서나 외교를 통해서나 독일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외교보다는 전쟁을 통한 사라예보 사건의 해결을 추구하고, 유럽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석한다.<sup>26)</sup>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베트만 - 홀벡이 7월 위기 동안 보여준 러시아와의 외교협상, 발칸지역에서의 국지전 구상(Halt in Belgrade), 그리고 7월 29일 이후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설득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물론 베트만 - 홀벡 또한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에 대한 전쟁이 유럽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7월 위기의 최후의 순간까지 유럽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7월 23일 베트만 - 홀벡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와의 전쟁에서 영토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면 유럽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대사 푸르탈레스(Friedrich von Pourtalès)에게 러시아 외상인 사조노프(Sergey Sazonov)와 협상할 것을 지시했다. 7월 24일 푸르탈레스는 우선 사조노프를 만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세르비아의 행위는 범죄라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양국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조노프는

26) Holger Herwig, op.cit., 1997, pp.20~21.

이를 반대하였다. 사조노프는 오히려 최후통첩 내용이 세르비아가 수용하기 지나친 내용을 담고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삼국협상과 삼국동맹국으로 구성된 강대국 회담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베트만 - 홀벡이 의도했던 외교협상은 7월 26일에 다시 진행되었다. 사조노프는 푸르탈레스의 주선으로 오스트리아 대사인 사파리(Frigyes Szapáry)를 만나게 된다. 그는 러시아는 평화를 유지하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최후통첩에 담긴 오스트리아의 요구사항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사파리는 베트만 - 홀벡이 구상했던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가 영토획득을 목적으로 세르비아를 응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경선 주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전달한다. 이에 더해 푸르탈레스는 사라예보 사건으로 다시 대두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의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문제는 단순한 배려로 사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sup>28)</sup> 베트만 - 홀벡이 오스트리아의 응징이 영토확장을 의도한 것이 아닌 발칸지역에서의 안정화라는 내용이 러시아에 신속하게 전달될 경우 러시아의 개입을 막고 유럽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과 같이, 러시아에서의 외교협상을 주도했던 푸르탈레스 또한 낙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조노프가 자신의 제안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의 의견을 구했다고 전달하면서 궁극적으로 사조노프가 일전에 언급했던 6개국의 회담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7월 27일 다시 베트만 - 홀벡은 푸르탈레스로 하여금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응징을 통해 영토를 획득하지 않을 것이고, 세르비아의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동원령을 억제할 것을 사조노프에게 요구하도록 하였다.<sup>29)</sup> 7월 27일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만 - 홀벡은 자신의 국지전 구상이 더 큰 유럽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27) 정상수, 전계서, 2013, 314~317쪽.

28) 상계서, 318쪽.

29) 상계서, 319~321쪽.

있었다.<sup>30)</sup>

그러나 사실 러시아는 이미 7월 25일 동원준비령에 대한 발표를 결정한 바 있었고, 이것은 총동원령의 전단계로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선으로 군대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7월 27일에 독일 외교관들의 전보에 의하면 러시아 부대들이 오스트리아-독일 국경선으로 배치되고 있었으며, 7월 28일에는 갈리시아 방면의 네 개 군관구의 동원이 이뤄졌다.<sup>31)</sup> 베트만 - 홀벡은 오스트리아를 통해 영토를 병합하지 않는 발칸에서의 국지전 구상에 기반한 외교협상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부분적인 동원에 대한 위협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다소 늦게 저녁 8~10시가 되어서야 러시아의 동원상황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여러 고위 관리들은 동원자체가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며 아직 독일은 자국의 여론과 영국의 문제로 인해 대응을 결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베트만 - 홀벡이 국지전 구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스트리아에 대해 세르비아에 대한 국지전이 아닌 강대국간의 협상을 통한 세르비아 문제 해결을 오스트리아에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7월 29~30일이다. 잭 레비는 이때 독일의 입장에서 중요한 위협인식으로 작용한 국가는 러시아가 아닌 영국이라고 주장한다.<sup>32)</sup> 그는 7월 28일까지만 해도 베트만 - 홀벡이 국지전 구상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에게 외교협상을 요구하면서 7월 위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은 영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중요한 전제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국지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베트만 - 홀벡의 전제에는 영국의 참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7월 25일 영국의 외상 그레이(Sir Edward Grey)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조노프의 6개국 회담 제의에 동의하면서

30) Richard Hamilton and Holger Herwig, op.cit., 2004, p.86.

31) Hew Strachan, op.cit., 2003, p.21.

32) Jack Levy, Thomas Christensen and Marc Trachtenberg, op.cit., 1991, pp.190~191.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에 동참하는 모습을 초기에 보였지만, 7월 29일 런던 주재 독일대사 리히노브스키(L.M. Lichnowsky)를 통해 베트만 - 홀벡은 만일 독일과 프랑스가 분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영국은 개입할 것이라는 그레이 외상의 입장을 전달받게 된다.<sup>33)</sup>

베트만 - 홀벡은 7월 위기 중에 고수했던 발칸지역에서의 국지전 구상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가 강대국 중심의 중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다. 7월 30일 베트만 - 홀벡은 비엔나의 치르스키 대사에게 오스트리아로 하여금 세르비아와의 평화를 모색하도록 설득하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낸다. 그리고 5분 후 다시 오스트리아 외무성에 직접 독일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면서 격화될 수 있는 갈등을 막고자 했다.<sup>34)</sup> 베트만 - 홀벡은 이처럼 7월 위기중에 벨그라드에서의 정지(Halt in Belgrade)라는 국지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7월 29~30일에는 아예 국지전이라는 선택 자체를 하지 않도록 오스트리아에 대한 설득을 시도했지만, 당시 독일 군부의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 그리고 전쟁에 대한 입장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독일의 육군성 장관(War Minister) 팔켄하인(Erich von Falkenhayn)과 육군참모총장 몰트케(Helmuth von Moltke the Younger)는 베트만 - 홀벡과 같은 위협인식과 그에 기반한 전쟁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7월 25일 휴가를 떠났던 몰트케가 베를린으로 돌아온 이후, 독일의 군부는 정보망을 통해 러시아가 동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7월 25일과 26일에 입수하게 된다. 7월 27일에 여전히 7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트만 - 홀벡과는 다르게 7월 28일 독일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내리기 직전의 상황임을 파악한다. 그리고 같은 날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팔켄하인은 몰트케에게

33)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498쪽.

34) 상계서, 500쪽.

더욱 강경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기 시작한다.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부분 동원령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전쟁을 의미하지는 않았다고 본 베트만 - 홀벡과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군부의 위협인식은 사뭇 달랐던 것이다.

독일 군부의 외부위협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의 근거로 잭 스나이더(Jack Snyder)는 당시 군부의 공세지상주의(the Cult of the Offensive)와 연관시킨다. 몰트케(Helmuth von Moltke the Elder)와 쉘리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에 대한 도그마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다.<sup>35)</sup> 하지만, 쉘리펜 계획과 군부의 공세지상주의의 존재여부와 그 영향력은 상당한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쉘리펜 계획의 역할과 공세지상주의에 대한 반론은 테렌스 주버(Terence Zuber)의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sup>36)</sup> 그는 쉘리펜 계획이라고 여겨지는 1905년의 메모가 과연 선제공격을 전제하고 있고, 신속한 동원을 추구하는 매우 경직된 계획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흔히 쉘리펜 계획이라고 불리는 1905년의 메모는 그 무렵 쉘리펜이 실시한 다른 군사훈련 기록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일탈에 가까울 만큼 동떨어진 작전개념이었다.<sup>37)</sup> 단적으로 1905년 11월~12월 위계임에서 오히려 벨기에를 통한 우회기동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35) Jack Snyder, *The Ideology of the Offensive: Military Decision Making and the Disasters of 1914*, 1984, Cornell University Press, pp.155~156.

36)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17.

37) 배명훈, 「슐리펜 플랜 논쟁의 전략사상적 기초」,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논문, 2007, 21~22쪽. 배명훈은 쉘리펜 계획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주력회전과 섬멸을 강조하는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으로 독일 군부를 분석한 것이며, 주버의 주장과 쉘리펜의 다른 계획들을 참조할 때 오히려 쉘리펜은 우회와 기동을 강조한 측·후방에 대한 공격과 전쟁수행을 강조했고 섬멸을 위한 경직된 계획과 선제공격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쉘리펜 계획은 조미니와 리델하트와 같은 계열의 전략사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철도에 대한 쉘리펜의 강조는 유연한 병력활용을 위한 기동에 대한 강조이지 단일한 작전선에 따른 속도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독일이 아닌 프랑스였고, 쉘리펜은 프랑스의 선제공격으로 우방이 된 벨기에의 앤트워프 요새로 병력을 이동시켜 프랑스군 좌측면에 대한 공세를 감행하였다.

따라서, 당시 독일 군부의 위협인식과 공세적인 모습을 스나이더나 반 에베라(Stephen van Ever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쉘리펜 계획 자체의 공세적인 성격과 공세지상주의로 환원시키는 것은 무리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7월 위기에 나타난 팔켄하인과 몰트케의 위협인식을 보면, 멀리 있는 영국보다는 실제로 독일의 동부지역에 국경을 연하고 있는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을 준비하는 모습을 베트만 - 홀베크와는 달리 상당한 위협과 전쟁의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독일 군부의 입장에서 7월 위기 중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위협으로 인식한 이유는 7월 24일과 25일에 진행된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그 움직임이 1912년 1차 발칸전쟁 당시 러시아가 보여준 다소 즉흥적인 동원준비와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1912년 발칸지역의 분쟁에 개입을 시도한 오스트리아에게 압력을 넣고자 했던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오스트리아에 대항한 시범적인 동원조치를 보여주었다. 그에 반해, 1914년 7월 위기 중 러시아가 보여준 동원준비는 오스트리아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 국경에 걸쳐 이뤄졌고 여기에는 독일과의 접경지대도 포함되었으며, 7월 26일 이후로 독일 정보국은 이 같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sup>38)</sup> 이 같은 정보는 몰트케와 팔켄하인과 같은 독일 군부의 수뇌부에게 전달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동원속도가 독일보다 느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러시아가 세르비아에 국한되지 않은 전쟁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실제적인 위협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러시아의 부분동원령을 예상하던 몰트케는 7월 28일에 베트만 -

38)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p.51~52.



홀벡에게 군사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에서 푸르탈레스를 통해 사조노프를 설득하고 있었던 베트만 - 홀벡은 러시아가 곧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또 만약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고 독일은 방어적인 모습을 취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계산도 함께 깔려있었다.<sup>39)</sup> 7월 29일 독일 총참모부의 예상대로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을 내리게 되고, 팔켄하인과 몰트케, 베트만 - 홀벡은 빌헬름 2세가 있는 포츠담으로 찾아가 급박한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팔켄하인은 이미 시작된 군사적 조치들이 정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는 전쟁이 필요없다고 생각했던 빌헬름 2세는 다시 전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서지만, 베트만 - 홀벡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지한다.<sup>40)</sup>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만 - 홀벡은 영국이 중립을 지켜준다면 그나마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7월 29일 밤, 그는 영국대사 고셴(W.E. Goschen)을 통해 영국이 만약 중립을 지켜준다면 네덜란드의 중립을 보장하고 동시에 프랑스에게 손해를 끼칠 영토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그레이 외상은 이를 거절하고, 분쟁이 만약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와 독일이 개입하는 것으로 확대된다면 영국이 참전할 것이라는 답을 받게 된다. 7월 30일 러시아는 총동원령을 발동하고, 그 이전부터 러시아의 동원에 대해 정보를 들었던 몰트케 또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동원에 대한 문서들을 봐야겠다고 주장하면서, 군사적인 조치를 우선 보류한다. 7월 31일에 도착한 러시아의 동원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고 난 후, 몰트케와 베트만 - 홀벡은 모두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sup>41)</sup> 결국 독일은 7월 31일 총동원령을

39)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p.45~46.

40) Richard Hamilton and Holger Herwig, op.cit., 2004, p.87.

41)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47.

발동하고, 러시아에는 군사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낸다. 프랑스에게도 입장을 질문하였으나 프랑스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한다는 답을 남기며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은 8월 1일 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다.<sup>42)</sup>

요컨대, 7월 위기 중 나타난 독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위협인식은 크게 육군성 장관이었던 팔켄하인과 육군참모총장 몰트케로 대표되는 독일 군부의 인식과 독일의 제국수상이었던 베티만 - 홀벡과 카이저 빌헬름 2세로 대표되는 정치인의 인식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7월 5일과 6일에 흔히 백지위임장이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원약속은 당시 1912년과 1913년 두 차례에 걸친 발칸전쟁 이후에 발칸지역에서 더욱 위축되어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동맹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라는 삼국협상 국가에 둘러싸인 독일이 유일한 동맹국가 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위협인식하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 지원약속에는 빌헬름 2세와 베티만 - 홀벡의 인식이 주로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해 일으키는 전쟁은 신속하게 이뤄질 보복전이며,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빠른 승리를 거둘 것을 ‘전제’로 한 지원약속이었다. 신속한 공격이 더욱 좋다고 빌헬름 2세가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제 속에서 프랑스나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를 더욱 없애는 것이 독일의 입장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에 제시된 것이지, 독일이 팽창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베티만 - 홀벡이 지속적으로 추구하던 국지전 구상,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과의 외교를 통해 강대국들의 군사행동을 지지하려고 끝까지 노력한 모습은 오히려 독일의 공세지상주의, 혹은 세계정책, 백지위임장 등을 근거로 제시된 독일에 대한 전쟁원인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42)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504쪽.

베트만-홀벡의 국지전 구상이 포기되고 다시 강대국의 협상과 중재에 의한 해결로 입장이 변화하는 7월 29일~30일이라는 시점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이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령이고, 두 번째는 영국의 중립보장의 실패이다. 잭 레비의 경우, 독일의 입장에서 전쟁 발발시 영국의 중립보장이 더욱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전쟁의 중립보장요청이 거절된 이후에서야 베트만-홀벡이 평화적 해결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마크 트라텐버그(Marc Trachtenberg)는 러시아의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령이 베트만-홀벡으로 하여금 자신의 국지전 구상이 더 큰 전쟁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아예 오스트리아로 강대국에 의한 중재를 받아들일도록 권고하는 정책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sup>43)</sup>

이러한 논쟁은 본 고에서 서술한 독일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이 같은 상황에서도 다소 달랐다는 점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영국을 중요한 위협 혹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군부가 아니라 베트만-홀벡 수상이었다. 러시아와 프랑스의 전쟁 개입이 불확실하거나 러시아의 동원준비로 인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푸르탈레스를 통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영국까지 개입하게 된다면 국지전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었고, 러시아의 동원자체가 전쟁의 의지를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7월 26일부터 러시아의 동원준비와 부분동원령의 발동으로 인한 부대의 배치가 발칸 전쟁시와 같이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고 독일 점령지대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정보국을 통해 얻은 팔켄하인과 몰트케에게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위협인식의 대상은 러시아였다. 즉, 러시아의 동원령과 전쟁 발발 시 영국의 중립보장 실패가 각각 독일 군부와 정치인에게 주된 위협인식의 대상이 되었으며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작용하는 가운데, 베트만-홀벡의 국지전 구상과

43) Jack Levy, Thomas Chirstensen and Marc Trachtenberg, op.cit., 1991, pp.197~198.

외교적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독일도 총동원령과 선전포고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4. 러시아의 위협인식 : 정치인과 군부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지금까지 주로 다뤄졌던 독일의 전쟁 책임과 원인제공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사라예보 사건이 1차 세계대전으로 격화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른 국가들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7월 위기 중 베트만-홀벡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베트만-홀벡의 초기 구상인 발칸 지역에서의 국지전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개입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면 사라예보 사건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간의 충돌로 귀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지전 구상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넘어서 동원준비령, 부분동원령, 그리고 총동원령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위협인식을 증대시키는 군사적인 조치를 취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정상수는 7월 위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사라예보 사건을 유럽전쟁,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국제법상 세르비아와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실제 개입하고자 했던 러시아의 의사표명에 주목하고 있다.<sup>44)</sup> 발로프 또한 러시아가 제3차 발칸전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7월 위기를 대륙전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상수와 발로프는 1차 세계대전으로 사라예보 사건의 갈등이 증폭되는데 러시아의 군대동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데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44) 정상수, 전제서, 2013, 300쪽.

전술한 바와 같이 마크 트라텐버그도 영국의 중립거부보다는 러시아의 부분 동원령이 베트만 - 홀벱의 일시적인 정책전환에 중요한 변수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상수는 사조노프가 이미 유럽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보는 반면, 밥로프는 러시아의 동원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억제를 위한 강한 결심의 표현이었으며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는 의견 차이를 보인다.<sup>45)</sup> 이 같은 논점은 러시아의 동원령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문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기 위해 7월 위기의 러시아의 위협인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입장에서 다소 다른 의미에서 위협으로 인식된 국가가 러시아와 영국이었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 위협으로 인식된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었고, 러시아가 7월 위기 중 핵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은 세르비아의 독립 보장과 러시아 제국 위신이었다. 1908년부터 1913년의 발칸 지역에서의 위기에서도 세르비아의 독립이 위협된 적이 없었지만 7월 23일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보낸 최후통첩은 세르비아의 독립과 주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sup>46)</sup> 또한, 러시아는 당시 페테르부르크에서 오스트리아의 전보를 해독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기 위해 필요한 8개 군단 이상의 11개 군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동원은 세르비아가 아닌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 또한 위협인식을 증대시켰다.

발칸 지역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의 상실은 곧 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으로 여겨졌고, 동시에 오스트리아의 강경한 대응은 독일의 배후 지원이 없이 가능할 수 없다고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는 생각했던

45)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227.

46) 오스트리아의 예상과는 다르게 세르비아는 최후통첩의 10개 항목 중에서 사라예보 사건 재판심의회에 오스트리아 관리의 참여를 제외한 모든 조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주권침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것이다.<sup>47)</sup> 당시 러시아의 정책결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농림부장관 크리보셰인(Krivoshein)과 사조노프는 강경파에 속했고, 7월 24일 러시아의 긴급대신회의에서 세르비아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참석한 관리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는 7월 24일 아침, “이제 유럽전쟁이다(C'est la guerre européenne)”라고 말하며 유럽전쟁의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다. 정상수는 사조노프가 포앙카레(Poincaré)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던 7월 20일~23일 사이에 먼저 오스트리아의 최후통첩문 준비를 알고 있었고, 이미 유럽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sup>48)</sup> 7월 초에 주 이탈리아 독일대사 플로토프(Hans von Flotow)가 이탈리아 외상에게 오스트리아가 강경한 대응을 세르비아에 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달한 이후, 이탈리아 외상은 페테르부르크와 비엔나에 전보를 통해 두 지역의 특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암호해독 작업을 통해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되었던 것이다.<sup>49)</sup>

정상수는 특히 사조노프가 7월 24일 러시아 프랑스대사 팔레올로규(Maurice Paléologue)와 영국대사 뷰캐넌(George Buchanan)에게는 러시아의 강경대응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7월 26일 독일대사 푸르탈레스와 오스트리아 대사 사파리에게는 러시아가 평화를 위해 타협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중재자로서 독일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 또한 같은 관점에서 해석한다. 사조노프는 러시아가 광대한 영토와 미약한 교통 시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원령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독일의 신속한 대응을 막으면서 동원준비령을 내리기 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7월 위기를 가능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베트만-홀베크과는 다르게 사조노프가

47)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p.243~247.

48) 정상수, 전계서, 2013, 314~315쪽.

49)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p.49~50.

7월 위기를 유럽전쟁으로 확대시키고자 했다고 보고 있으며<sup>50)</sup>, 러시아의 동원령은 같은 맥락에서 실제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러시아가 부대 동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렸으며 강경한 대응을 하고자 했던 점은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지만,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령과 총동원령과의 관계, 그리고 동원령에 대한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만약 정상수와 같이 사조노프가 유럽전쟁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사조노프가 부분동원령을 추진한 것에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반면 김용구는 7월 24일 러시아 대신회의에서 차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분 동원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지만, 사조노프는 당시 오스트리아만을 상대로 하는 부분동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서술한다.<sup>51)</sup> 정상수는 김용구의 의견에 대해 이는 독일 정부가 러시아에 총동원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을 때 변명에 가깝게 제시했던 것이고, 미국과 유럽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적절치 못한 해석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터너(Turner)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러시아가 부분동원령만을 실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며, 총동원령으로의 전환은 어떤 동원령이든지 일단 실행되었을 경우, 동맹체제에 의거해 연쇄적인 선전포고와 전쟁참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총동원령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만약 러시아가 유럽전쟁을 처음부터 추구했다면 총동원령을 바로 내리지 않고 부분동원령이라는 중간단계를 시행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7월 25일에 니콜라이 2세(Nicholas II)가 부분동원령을 시행할 때에도 재차 독일접경지대가 아닌 오스트리아 접경지대에 대한 부대배치를 강조한 점과 7월 29일에 사조노프가 독일 대사에게 동일한 사실에 대한 강조를 한 사실<sup>52)</sup>에

50) 정상수, 전계서, 2013, 322~324쪽.

51)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503쪽.

52)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250.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즉, 정상수의 주장은 사조노프가 부분동원령과 총동원령을 구분하려 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분동원령을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력을 위한 조치로 활용하려고 했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최근 윌리엄슨과 밥로프의 연구는 정상수와 같이 사조노프가 애초부터 유럽전쟁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이들은 우선 7월 24일과 25일에 이뤄진 동원준비령(preparatory measures)이 1913년에 새롭게 도입된 동원준비시기(the Period Preparatory to Mobilization/War) 프로그램의 일환이었고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총동원을 가속화시키기 프로그램 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분동원령은 사실 1904~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할 당시에 사용했던 계획이었으며, 또한 1차 발칸전쟁시에 갈리시아 방면에서 오스트리아 군대의 동원에 의해 실패했던 경험으로 인해 신속한 총동원이 가능한 동원준비시기 프로그램을 고안했었던 것이다.<sup>53)</sup> 따라서 부분동원령(partial mobilization)과 동원준비시기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원준비령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사조노프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동원준비령이 총동원령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다. 부분동원령은 제대로 된 계획없이 실행은 될 수 있었지만, 총동원을 목표로 하는 동원준비령과는 상충하는 계획이었기에 총동원이 진행되는 시간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었다.<sup>54)</sup>

밥로프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사조노프와 니콜라스 2세가 부분동원령을 통해 1912년 가을에 오스트리아에 가했던 협상을 위한 압박을 재현하고자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니콜라스 2세는 네 개 군관(오데사, 키예프, 모스크바, 카잔)과 흑해와 발틱함대에 대한 부분동원령을 육군성장관 수흐린노프(Sukhomlinov)와 육군참모총장 이아누세비치

53)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248.

54) Jack Levy, 「Preferences, Constraint, and Choices in July 1914」,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3, Winter, 1990~1991, p.179.



(Ianushkevich)에게 명령하였고, 만약 오스트리아 군대가 세르비아의 국경을 넘을 시에는 오스트리아 국경지대로만 부대를 배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부분동원령이 군사력 시위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군사적인 조치를 억제하고, 독일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고자 했던 러시아의 의도를 보여준다.<sup>55)</sup> 이러한 의도에서 부분동원령이 하달되었지만 니콜라스 2세와 사조노프는 물론 심지어 수흐린노프와 이아누세비치조차 동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알고 있지 못했다. 사조노프는 7월 24일 대신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25일과 26일에 시행에 들어간 동원준비령이 사실은 총동원의 준비단계이며 이 조치는 오스트리아와의 접경지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모든 국경지대에서 실시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조노프와 니콜라스 2세는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령을 단계적으로 의도하였지만, 실제 군부에 의해서 시행된 것은 총동원령의 초기 계획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용구가 사조노프가 부분동원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언급한 것은 7월 24일에 결의된 동원준비령이 그가 구상한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를 위한 부분동원령과는 다른 동원이었다는 점에 대해 몰랐다는 점을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윌리엄슨과 밥로프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니콜라스 2세와 사조노프가 여전히 전쟁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제시한다. 니콜라스 2세의 경우, 역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독일의 빌헬름 2세와의 서신교환을 통해 서로 상대방이 군사적인 조치를 멈추기를 기대했으며, 7월 29일에는 총동원령을 내렸다가 빌헬름 2세의 서신을 받고 부분동원령으로 명령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sup>56)</sup> 같은 기간의 사조노프는 오스트리아의 국경지대에서만 이뤄지는 부분동원령을 지속적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과의 외교전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밥로프는 사조노프가 지속적으로

55) Richard Hamilton and Holger Herwig, op.cit., 2004, pp.108.

56)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51, 249.

부분동원령이라는 군사적 조치가 외교전에서 러시아가 나름의 영향력 (leverage)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본다. 특히 사조노프는 베를린의 대리공사를 통해 러시아의 부분동원령이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며,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에서 대사를 철수시키지 않을 것을 전달하도록 하여 러시아가 실제로 전쟁을 확대시키고자 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도록 지시했다고 여겨진다. 그는 7월 29일에 독일 대사를 불러 오스트리아 국경에서만 부분동원이 이뤄지며 러시아의 동원이 반드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정상수는 사조노프의 지시에 의해 수흐린노프가 7월 26일 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무관 에겔링(Eggeling)에게 독일 국경선에 해당하는 군관 구에는 동원령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럽전쟁을 구상했던 러시아의 원래 의도를 은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전술이었다고 해석한다.<sup>57)</sup> 그러나 동원준비령은 부분동원령과는 다르게 총동원을 지향하는 조치임을 사조노프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위장전술을 의도하지 않았어도 가능한 대화이며, 오히려 동원계획에 대해 무지한 사조노프가 부분동원령을 의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7월 29일 오후, 사조노프는 독일 대사로부터 러시아가 군사적인 조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독일 또한 동원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게 된다. 이 시점이 이미 독일의 동원준비에 대한 소식을 접했던 러시아의 입장에서 독일의 대한 위협인식이 확인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밥로프는 사조노프가 군사적 동원을 통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억제와 그것이 실패할 경우의 군사적인 조치를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동원준비령과 부분동원령을 통한 러시아의 억제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7월 28일 동원령을 내리게 되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의 실패와 오스트리아를 지원할 독일에 대한 위협인식이

57) 정상수, 전게서, 2013, 320쪽.

강화되면서 7월 31일 러시아는 총동원령을 발동하게 된 것이다.<sup>58)</sup>

총동원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동원준비령이 내려지면서 사조노프의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의 군대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독일과의 접경지대에도 동원되기 시작했고, 이 모습이 독일 정보국에 의해 포착되면서 독일 군부의 위협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사조노프의 경우, 군부와 의 소통과 조정된 계획의 실행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상수는 이 같은 정치인과 군부의 다른 위협인식과 동원령의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7월 31일의 총동원령이라는 결과를 통해 사조노프의 외교를 해석했기 때문에, 사조노프가 처음부터 유럽전쟁만을 유일한 선택지로 생각했다는 해석을 다소 과장된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분동원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총동원을 목표로 한 동원준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의 부분동원령은 총동원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전투준비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군부의 총참모부(high command staff)에 의해 선호되었던 것은 총동원령이었다. 부분동원령이 하달된 지 이틀 째, 동원계획을 담당했던 다닐로프 장군(General Iu. Danilov)은 가까운 사조노프의 자문에게 부분동원을 총동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고 언지한 바 있고, 대부분의 경험이 있는 장군들과 군부의 대다수는 사조노프와는 다르게 동원계획상의 문제로 인해 총동원령을 지지하고 있었다.<sup>59)</sup>

부분동원령을 통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대한 억제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독일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위협이 실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7월 29일 이후 사조노프 또한 군부와 합세하여 빌헬름 2세와의 서신교환으로 인해 총동원령과 부분동원령을 번복하면서 갈등하고 있던 니콜라스 2세에 총동원령에 대한 압력을 넣기 시작하게 되었다.<sup>60)</sup> 다른 군사적인 조치의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설득당한 니콜라이

58)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51, 251.

59) Jack Levy and John Vasquez, op.cit., 2014, p.248.

60) Michael Mann, op.cit., pp.762~763.

2세는 결국 7월 31일 총동원령을 하달하면서 독일의 동원령과 선전포고를 야기하게 되었다.<sup>61)</sup> 요컨대, 강경파에 속하는 사조노프의 경우도 초기에는 부분동원령을 통한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를 고려할 때 그의 입장에서 오스트리아 국경에 국한된 부분동원령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분동원령과 총동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동원준비령에 대한 무지와, 많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동원령보다는 총동원령을 내리기를 바라며 사조노프와 니콜라이 2세를 설득했던 군부의 정보전과 위협인식으로 인해 결국 러시아는 총동원령이라는 1차 세계대전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7월 위기 중에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 위협인식의 연쇄반응과 정보전, 그리고 독일 패러다임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최근 연구의 입장은 크게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독일패러다임을 여전히 지지하는 입장과 독일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독일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논의는 독일의 세계정책, 솔리펜 계획, 공세지상주의, 영국과의 해군경쟁, 제국주의와 7월 위기 중 백지위임장과 같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독일의 지원약속 등이 포함되는데, 이 같은 독일 패러다임은 그 동안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규명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6월 28일 사라예보 사건 이후 8월 4일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기까지 7월 위기에서 드러난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에 기반한 외교협상, 정보전, 그리고 정책의 조정은 사라예보 사건이 유럽전쟁으로,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격화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한 것이 독일뿐만이

61) Jack Levy, op.cit., 1990~1991, p.180.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7월 위기에는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시도한 오스트리아, 7월 위기중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프랑스, 7월 말이 되도록 전쟁 발발 시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다가 7월 29일이 되어서야 독일이 벨기에의 중립을 침범할 시에는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영국, 그리고 동원준비령, 부분동원령, 총동원령을 통해 독일의 위협인식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 러시아가 등장하고 있다.

독일과 러시아는 그 중에서도 발칸지역의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강대국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위협인식을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본고는 영국의 중립거부와 러시아의 동원령 중 어떤 요인이 독일의 위협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 왜 부분동원령을 하달한 이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다가 급작스럽게 총동원령을 하달하게 되는지와 같이 논쟁이 되는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독일과 러시아의 정치인과 군부의 위협인식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수상 베티만-홀벡은 발칸 지역에서의 국지전을 추구하면서 러시아와 영국을 설득하다가 7월 29일~30일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에게 강대국에 의한 중재를 받아들이라는 권고를 요구하였지만, 그것이 실패하자 러시아의 총동원령 이후 동원령을 발동하게 된다. 국지전 구상에서 강대국에 의한 중재로 베티만-홀벡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베티만-홀벡은 영국의 참전 혹은 중립이라는 요인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고, 팔켄하인과 몰트케와 같은 군부의 경우 이미 동원준비령을 통해 독일 국경지대에 부대를 동원하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 속에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이 더 중요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이 세계 제국으로 팽창하려는 의도 속에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독일 패러다임의 한 측면임을 알 수 있다.

베트만 - 홀벡과 같은 독일 정치인의 위협인식과 판단을 통해 다소 부풀려진 독일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총동원령과 관련한 위협인식과 판단은 1차 세계대전 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논의가 부족했던 러시아의 역할 또한 독일 패러다임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정상수는 7월 위기 중 러시아가 갈등을 격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동의하나, 사조노프와 군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조노프와 니콜라이 2세의 위협인식과 동원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부와는 달랐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면서 사조노프가 애초부터 유럽전쟁을 의도했다는 과장된 주장을 펼친다. 반면, 윌리엄슨과 밥로프는 동원준비령이 총동원을 위해 고안되어 있었던 측면을 사조노프가 이해하지 못한 점과 부분동원령을 시도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대한 억제력을 처음 시도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군부와 정치인 간의 인식의 차이, 부분동원령이 가능한 하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였고 이미 동원준비령을 통해 독일 국경에 부대가 배치되는 상황 속에서 총동원령이 더 효율적일 것을 강하게 주장한 군부의 설득에 의해 러시아는 결국 총동원령을 7월 31일에 하달하였던 것이다.

1914년의 7월 위기가 있기 1, 2년전인 1912년과 1913년에 1,2차 발칸전쟁이 발발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불가리아가 패배하고 세르비아의 영토확장이 이뤄진 1913년 2차 발칸 전쟁의 결과는 오스트리아의 입장에서 7월 위기 못지않은 위협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 전쟁은 모두 발칸지역에서의 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1차 세계대전처럼 유럽전역에서의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세르비아, 불가리아에 의해 오토만 제국이 패배한 1차 발칸전쟁에서도 베트만 - 홀벡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독일이 참전할 것을 밝힌 바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7월 위기의 독일과 러시아의 정치인 또한 모두 자신의 동맹국과 지원국을 지원하고자 하였고, 1, 2차 발칸전쟁과 같은 국지전이나 동원령을 통한 오스트리아에

대한 억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오스트리아의 강경파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독일과 러시아의 군부는 또한 나름의 위협인식과 동원과 전쟁계획 속에서 갈등이 안정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독일 패러다임의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러시아의 동원령은 독일의 위협인식을 형성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독일과 러시아의 군부간의 정보전은 직접적으로 양국 군부의 위협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의 정치인들이 억제, 혹은 협상과 국지전으로 마무리하려던 7월 위기가 1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sup>62)</sup>

(원고투고일: 2014. 7. 1, 심사수정일: 2014. 8. 12, 게재확정일: 2014. 8. 20)

주제어 : 7월 위기, 1차 세계대전, 위협인식, 러시아, 동원, 정보전, 독일 패러다임

62)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484~488쪽.

<ABSTRACT>

## The July Crisis and the Causes of the First World War Revisited: Civil-Military Threat Perceptions of Germany and Russia

Oh, In-hwa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Germany and Russia during the July Crisis in 1914, focusing on the civil-military threat perceptions of both Great Powers. Specifically, it argues that Russian decisions during the July Crisis—including preparatory mobilization measures as well as the general mobilization—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scalating the July Crisis into the outbreak of the First World War. By clarifying the threat perceptions of the political leaders and the military, the study also tries to help resolve debates on the German and Russian decisions.

The so-called German “Blank Check” was given to Austria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ustria would defeat Serbia shortly and the crisis would be over. Furthermore, German Chancellor, Theobald von Bethmann-Hollweg, was concerned about losing one of Germany's few allies, Austria. This threat perception led the Chancellor to pursue the localization of the July Crisis, and persuade Russia not to intervene. However, Russia's preparatory mobilization measures near German borders, discovered and reported by German intelligence, strengthened the threat perception of the German military towards Russia, inducing the more aggressive positions of Erich von Falkenhayn and Helmuth von Moltke the Younger.



Sang-Soo Jung has asserted that Sergey Sazonov, the Russian Foreign Minister, pursued the European War after the Austrian ultimatum against Serbia. Jung emphasizes that Sazonov's remark – Russian mobilization was only aimed at Austria, not at Germany – was made to deceive Germany. However, this argument is too simplistic, because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at Russia just attempted to deter Austria and Germany through mobilization at first. As Samuel Williamson and Ronald Bobroff have argued, Sazonov tried to deter both Austria and Germany with preparatory measures and partial mobilization, without knowing that preparatory measures were actually part of a general mobilization program. Having realized that deterrence had failed, Sazonov soon convinced Nicholas II to order a general mobilization with the military, who also thought that partial mobilization was infeasible.

In short, the Russian mobilization, including preparatory measures and the general mobilization, prompted Germany to mobilize her troops, finally escalating the July Crisis into the continental war and ultimately the First World War. Though Jack Levy contends that the British rejection of the German request on the 29th and the 30th the July was a more direct factor in the shift of German decision, the Russian mobilization still had a significant influence in terms of the German military's threat perception. The gap between political-military threat perceptions helps to elucidate and analysis the decision-making process during the July Crisis. It also contributes to challenging the German Paradigm, refocusing on the roles of countries other than Germany in the outbreak of the First World War.

Key Words : the July Crisis, the First World War, Civil-military Threat Perception, Russia, Mobilization, Intelligence, the German Paradigm

